

「포스트모던 신학」

Post-Modern Theology

(프레데릭 번햄 편, 세계신학연구원 역, 조명사, 1990.)

김동춘

I. 들어가며: 어떤 서평을 할 것인가?

보통 ‘서평’이란 그 책을 읽지 않는 독자에게는 그냥 넘어가기 쉬운 코너이다. 혹은 책을 읽었더라도 서평이 그 책과 관계해서 진행되니 만큼 읽은 책에 대한 감각을 이미 놓쳐 버린 독자에게는 서평이 지겨운 코너가 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필자의 노력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기 쉬우므로, 필자는 이번 서평에서 단순히 그 책을 읽은 느낌이나 독후감을 적는 정도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 비판과 대안을 내면서 체계를 구성하여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도 소논문을 읽듯이 혹은 에세이를 읽듯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서평을 해 보려고 한다.

II.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신학 개관

최근의 사회상황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는 혼란기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몇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확대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원화 현상, 전반적인 보수 회귀, 복고주의의 경향, 환경문제와 평화문제를 통한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중 다원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유행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모더니즘의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가치체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등장했다. 단일한 중심, 획일화 등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찬미하며 기존 질서의 해체를 주장한다. 특히 18,19세기의 계몽 시대에 시발하여 주지주의, 내재주의, 절대주의, 과학주의, 진보주의를 따면서 이성, 합리성의 이름으로 자기를 관철시켜 온 모더니즘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현대에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근저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 탈합리주의, 상대주의, 탈인간중심주의, 탈정치화, 탈역사화 등을 표방한다.

이러한 다원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낳았고, 거기에서 파생한 다원주의 신학은 포스트모던 신학을 형성하려고 한다. 다원주의 신학은 기존의 기독교 중심적인 신학(‘배타주의 신학’이라 표현)과 기독교를 타 종교에 접목하려는 신학(‘포괄주의 신학’이라 표현)을 배격하고,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신 아래 대화를 시도하려는 신학이다.

다원주의 신학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종교의 장점 역

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며, 또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기에 때문에 진지하게 신에 대해 질문하고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등종교라면 타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런 전제 위에서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서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런 다원주의 신학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획일화와 독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신학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신학은 때때로 당대의 사회를 반영한다. 이 말은 신학이 사회의 부산물이라거나 전혀 아무런 독자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신학 역시 나름대로의 전통과 독자성을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변함 없는 복음을 걸머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변모함에 따라 신학도 상황에 대한 복음적 조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색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모색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포스트모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신학이라 했을 때 포스트모더니즘에 적용하려는 신학이 있는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슬러 대체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신학이 있다.

III. 책의 개관

이 책은 읽기 전부터 ‘포스트모던 신학’이라는 제목 자체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을 갖게 했다. 이 책도 상황에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상황에 따라가기 위한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신학이구나’ 하는 보수주의적인 선입견이 발동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의 자세가 마치 범죄자를 추적하는 수사관처럼 예리하고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책을 살살이 훑어보게 했다.

그런데다가, 이 책의 서문의 글을 통해서 더욱 나의 확신(부정적인 선입견)이 굳게 되었다. 서문은 이 책의 번역을 담당한 세계신학연구원의 홍정수 원장이 썼는데 그 중에는, 「우리는 기독교를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하지는 않는다.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해방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신학을 연구한다」는 글이 있었다.

이 글은 ‘포스트모던 신학’이라는 연구가 ‘기독교’라는 외형적이고 형식적, 전통적 틀을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참다운 지평을 여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 말은 기독교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인상을 부여한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인가?’ 라는 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의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만한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빙자하여 기존 교회의 틀을 무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를 통한 선교는 아울러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 책에 대한, 즉 포스트모던 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책에 대한 예리하고 상세한 탐독의 노력이 오히려 이 책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긍정적인 점으로 작용했다. 이 책은 나의 선입견처럼 - 실제로 한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모던 신학 하면 감리교의 홍정수, 변선훈을 떠올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떠올릴 것이다 - 상황에 철저히 추종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콤플렉스를 가진 신학자의 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독교적으로 조명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는 학자들의, 아무나 할 수 없는 작업을 하려는 책이었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에 매몰된 글도 있었지만 대체로 건전한 책이었다.

이 책은 편저자인 변햄이 쓴 서론에서 개관적인 것을 잘 엿볼 수 있다. 편저자인 변햄은 각 학자들이 쓴 글을 요약하고 보충 설명을 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1987년 1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트리니티 연구원」 주최 미국의 학술회의의 초청에 응답하여 작성된 것들이다. 주제는 ‘근대 후기 시대의 교회’인데 각각 연사가 발표한 것들을 편집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일관성을 가진 논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각각의 논문을 통해 발표한 글들을 모은 것이라 포스트모더니즘과 신학에 대한 접근이 제각기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는 울퉁불퉁한 글들을 가지고 서평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러나, 이 책엔 크게 두 가지 논조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적응하려는(adapt) ‘포스트모던적인 신학’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려는(alternative) ‘포스트모던 대체 신학’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밀러는 ‘포스트모던적인 신학’을 강조했는데, 그는 과학적 언어의 우위성에 사로잡혀 과학이 그려주는 세계상으로써 모든 사유 대상을 거대한 구조 속에 통일시키고자 성경의 중심 사상을 오히려 과학 속에 적용시켜려 한다.

반면, ‘포스트모던 대체 신학’의 대표적인 저자인 린드벡은, 기독교가 포스트모더니즘 속으로 침투하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공통의 의미있는 언어를 제공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엘렌도 하나님의 실존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사회와 도덕을 위한 기초로 삼아, 하나님의 순수함과 선(善)을 접촉함으로써 해서 사회의 악을 제거할 것을 포스트모던의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즉 모던적인 기둥들의 몰락이 가져온 일종의 소외를 기독교의 유일한 가치로 치유할 수 있음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접근하는 기독교의 두 가지 큰 양상을 대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할 때 이 두 경향으로 분류해서 정리해 볼 것이다.

IV. 책의 내용과 비평

1. '포스트모던적인 신학'

1) 밀러 : '근대 후기 세계의 출현'

'밀러'(카네기-멜론대학교의 교목이자, 마케트대학의 전임강사)는 특히 포스트모던적인 신학을 강조한다. 그는 '신학은 철저히 시대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포스트모던 신학에 접근하고 있다. 즉, '근대 세계'에 대한 조명 후 거기에 어울리는 '근대시대의 신학'을 조명했고, 또한 '근대후기 세계'를 논하고 난 뒤 거기에 걸맞는 '근대 후기 신학'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근대 후기 세계의 출현'이란 글에서, 근대 이전 세계는 헬라의 사변적 우주론과 유대의 신학적 우주론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는데, 근대 세계에 진입하기 바로 전인 11,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가 헬라적 회복과 아리스토텔레스(자연철학과 그외 다른 철학)와 기독교 신학의 결합, 종합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였다. 이후 '코페르니쿠스갈릴레오 논쟁' 이후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과학은 기독교 교회와 신학적인 권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근대 세계로 들어가면서 '데카르트'(1596-1650)는 물질과 정신의 영역을 분리한 이원론에 근거한 기계론적 물리학을 제안하여 근대 시대의 아버지로, '칸트'(1724-1804)는 인식론적인 비판적 사고로 순수 이성과 실천이성의 영역, 지식과 신앙, 경험적 오성과 윤리, 과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포괄적 이원론을 제시하여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각각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원론의 바탕 위에 비경험적, 비과학적 측면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논리 실증주의’와 종교와 자연과학을 결합하려는 ‘환원주의’, 그리고 모든 의미의 중요성이 신앙과 도덕, 종교적 삶에 있다고 주장하는 ‘실존주의’가 각각 파생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근대시대에 걸맞는 신학으로 그는 먼저, 근대 자유주의의 아버지인 ‘윌리엄 마허’(1768-1834)를 근대 기독교의 아버지로 격상시켜 묘사함으로 그의 포스트모던 신학이 자유주의 흐름 속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윌리엄 마허는 종교적 신앙과 이성의 빛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관계 없이 인간 본래적 이성의 빛으로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기독교 신앙과 과학적 탐구를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그 뒤를 이은 ‘리처드’(1822-1889)와 ‘하르낙’(1851-1930)은 하나님을 인간의 진보를 위해 있는 분으로 설명하면서 종교와 문화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근대신학은 자연신학을 포기시키고 종교적 주제에로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밀러는 의의를 부여한다. 그리고 ‘바르트’(1886-1968) 같은 신정통주의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우위성을 주장하고, 초월자에 의해 계시된 “말씀”은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교의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대 후기(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근대 세계와 근대 신학은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밀러는 보았다. 밀러는 근대 이전의 세계의 상은 유기체적이고, 근대 세계는 기계적, 이원론적이며, 근대 후기 세계는 역사적, 관계적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근대 후기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첫째, 세계는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것이다. 세계를 완결된 피조물이 아니라, 계속되는 창조로 보았다. 둘째, 세계는 상대적이고 비결정적이며 참여적이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물리학, 양자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

정성의 원리 등이 미래가 미리 결정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의 진화 이론과 물리학의 양자 이론이 세계의 이미지를 역사를 지닌 물체가 아닌 역사 그 자체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러는 여기에 덧붙여 철학적인 인식 전환의 주제로 진화, 관계성, 비결정성, 참여를 등장시킨다. 그는 이런 주제를 지지하는 학자와 학설을 소개한다. 먼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대한 형식논리학이 아닌 상황적 의미를 지지하며 '실증주의'(과학적, 철학적, 신학적)를 단호히 거부하고, 포퍼는 자연과학이 합리성보다는 인간의 창조성이라는 비논리 활동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쿤은 세계관의 급진적인 변혁이 자연과학의 이론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톨민의 생태학적인 과정의 이해, 플라니의 '모든 인식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음', 화이트 헤드의 '세계는 실체 개념이 아닌 사건 개념으로 역동적 시간성, 유기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주장을 덧붙여 첨가한다.

이런 것을 통하여 밀러는 근대 후기의 세계관에 대하여 '진리란 기능적이고 가치평가적 개념', 즉 인식 주체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불완전하다고 하면서, '이 세계는 역사를 지닌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바로 역사 그 자체'라고 하였다. 그는 세계는 인과관계, 초월자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가 논리를 가지고 저절로 굴러가는 인격성을 가진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이런 근대 후기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신학(포스트모던 신학)으로 창조론, 인간론, 성육신과 종말론을 피력한다.

창조론에서, 우주는 과거에 창조되어 이미 완결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도 계속 창조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열려진 미래를 전제하고 있다.

인간론에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 특별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인간 중심성을 거부한다.

성육신과 종말론에서,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입은 유일한 존재적 사건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인정하지만 성육신 사건의 역동성, 계속성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성을 부정한다. 그러면서 종말론을 미래에 결정될 사건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종말론으로 간주하면서 역사 끝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다.

밀러에 대한 비평:

진화론적인 전제의 잘못: 밀러는 메스를 잘못 대었다. 밀러가 대야 할 메스는 이성이나 과학이어야지 성경이어선 안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아무리 중요한 사조나 신학적인 모티브가 된다 해도 전제가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의 포스트모던 신학의 기초는 '세계가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진화론이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세계를 상대적이고 비결정적, 참여적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용어 사용의 비약을 발견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옳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의 시공간개념은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절대적'이라는 용어를 시공간에 부주의하게 사용하듯 '상대적'이라는 용어도 비약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창조론: 물론 창조는 계속된다. 하지만 그 창조는 '완결된' 태초의 창조를 유지하는 창조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인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된 백성을 통해 깨어진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재창조이다. 밀러는 완결된 창조 이미지가 역사적 결정론을 지지한다고 설블리 진단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진행'은 양자역학이 결정하는 상태로서 미래에 대한 좌표계에 점들로 대응시킬 수 있는 수준의 진행이 아니다. 그리고 밀러는 하나님

만이 유일한 창조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창조자로 '지음' 받았다는 점은 그의 주장이 옳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인간론: 그는 인간론에서 인간의 중심성을 부인한다. 그는 인간의 청지기됨을 거부하고 역사 속에서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세계 속에서 희생과 사랑을 행하는 인간의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선언한다면 일종의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다량으로 양산시킬 수 밖에 없다. 밀러는 인간중심주의를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범신론과 비인간화를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과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신다. 부인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의 절대적 가치'는 결코 상대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성육신: 밀러는 성육신 사건의 유일성을 부정한다. 밀러의 주장대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재형성하고 우리 속에서 육화된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를 구체화시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함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현현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 자체는 되지 않는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성육신은 절대적이며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현현하신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공동의 순례자'가 되어 주신다. 성육신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재림에 의해 또 한 번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역사는 종결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이다.

2) 벨라: '다원주의 세계에서'의 기독교 신앙'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벨라 교수는 뒤에 언급되는 앨레이나 린드 벡처럼 성경의 언어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벨라는 린드벡에게 가해졌던 국지주의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린드벡의 말을 한층 뛰어 넘어, 상위 언어가 없는 다원주의적 세계에서 이에 성경의 언어를 고집할 필요없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에 적합한 문화 언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벨라에 대한 비평:

다원주의 세계라고 인정해도 모든 언어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해서도 안되고 모든 언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도 안된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언어는 다른 경전의 언어보다 우월한 것이다. 기독교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이비 집단들과 동등한 부류 속으로 전락하고 만다.

벨라는 성경의 언어를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근대 후기 세계에 적합한 성경언어만 끄집어 내어 인용하고 있다. 그는 성찬식이나 산상보훈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 그의 글에서 기독교의 세계를 축소시키고 있다. 그가 하나의 표본으로 몇 개의 이미지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작은 이야기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부르심'도 가난한 자만을 위한 부르심으로 축소시킨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만전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입었기에 어떤 진리만을 부각시켜 등잔 밑에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벨라는 다원주의 세계에 대한 약간의 콤플렉스를 가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독교상을 조합하기 위해 성경의 언어를 자연히 축소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다원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당당하게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조명하려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2. 포스트모던 대체 신학

1) 알렌 : ‘기독교 후기. 맥락에서의 기독교의 가치’

프린스턴 신학교 철학 분야의 교수인 알렌은 자족성, 이성, 진보, 낙관주의 등의 근대성의 네 기둥이 붕괴되었다고 전제한 뒤 이성의 실패를 논증하고 양도할 수 없는 가치인 기독교적 전제의 유효성을 주장한다. 알렌은 성경의 언어로 세속문화를 만나려고 시도한다.

그는 과거 근대 철학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역전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의 존재와 질서, 우주의 상태에 대하여 인격성을 두려는 시도가 요즘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사회 개혁의 불신은 심해지고 오히려 범죄, 오염, 빈곤, 인종 차별, 파괴적인 무기의 위협은 가면갈수록 심해져 가는 마당에, 진정한 정의를 가진 순수성을 가진 신앙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대 후기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음을 비치고 있다.

알렌에 대한 비평:

하나님의 실존을 비신앙인들에게 드러내되, 부드럽고 잔잔한 하나님의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기독교를 근대 후기 세계의 대안 공동체로 묘사한 것이 돋보인다. 이런 류의 포스트모던 신학은 건전한 것이다.

2) 린드백: '근대 후기 문화에 대한 교회의 사명'

린드백은 예일대학 역사신학 분야의 교수로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교리의 본성: 자유주의 후기 시대의 종교와 신학)라는 유명한 책을 쓴 저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 의제를 비판하면서 성경의 언어를 세속의 언어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고 일시적으로 문화 차단이 있을지라도 고유한 언어에 계속 충실하면서 통전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의 언어라 했을 때 린드백은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식의 “인식론적·명제적 이해”를 지양하고,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식의 “경험·표현주의적 이해”도 지양한다.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문화·언어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린드백은 이런 맥락에서 근대 후기 문화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성경 언어를 복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까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은 성경의 언어 세계와 상상력의 세계 속에서 살았다고 말한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이신론자와 무신론자들까지도, 그리고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듀이, 헉슬리 등도 언어나 생각에 있어선 성경에 젖어 있었다고 린드백은 본다. 그런데 요즘 일반 대화에서도 성경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어서, 공공의 복리를 토의할 수 있는 언어마저 없는 실정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시점에서 린드백은 더욱 성경의 언어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는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사회적인 문화적 활동을 주장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들 자신의 생활과 언어에 충실만 하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린드백에 대한 비평:

린드백은 바벨탑 붕괴 이후처럼 혼란스러운 근대 후기의 언어들을

성경 언어 안으로 통합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장소에 동등하게 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린드벡은 본 것이다. 린드벡의 성경의 권위를 부여잡으면서도 시대 사조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매우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물론 린드벡은 이것을 전제하고 글을 썼을 것이다.) 성경의 언어가 계시적인 단일 의미로 주어진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저버리고 성경의 언어를 상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시로서의 성경의 권위는 의심받을 수 있다.

교회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선 린드벡의 주장이 매우 일리가 있다. 근대 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무엇을 조직하고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는 차원보다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대안 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보여 준다.

3) 슈나이더스 : ‘성서는 근대 후기적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는가?’

미국 버클리의 예수회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슈나이더스는 알렌과 린드벡처럼 성경 언어를 부각시킨다. 그는 고등비평과 역사적 비평이 성경을 하나의 틀 안에 잡아 넣는 우를 범했고 이제 그것은 종언을 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회가 성경언어를 잠식시킨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책한다. 현재 다원주의적 문화 속에서 교회는 소수자의 입장으로 전략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슈나이더스는 성경 본문과의 보다 깊고 풍요한 만남을 독자 스스로 가질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근대 후기 세계에 걸맞는 폭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여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 가부장제라는 성경 문화의 틀과 해석하는 당사자의 가부장 의식의 껍데기를 벗겨야만 성경의 언어가 근대 후기 시대에 살

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슈나이더스에 대한 비평:

성경이 폭넓고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된다. 고등비평과 역사적 비평을 비판하면서 성경의 보다 깊은 영적인 면들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가부장제의 틀로서 아예 규정해 버리는 것은 성경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쓰레하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해석은 성경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비록 성경 해석자가 잘못 해석하였더라도 성경 자체의 권위는 일단 긍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해석학적 발전이 다소 늦어서 일반 문화에 대한 차단 현상이 있더라도 성경은 그 자체로서 권위있게 주어질 것이다.

성경에서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틀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성경 기록자의 문화적 배경도 인정하면서 유기적인 영감을 주셨기에 가부장제는 당시의 문화적 산물로서 그 모습이 성경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적 상황이지 원리적인 면에선 그렇지 않은 것이다.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신약의 예수님 이후는 오히려 여성해방을 원리적인 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4) 윌리엄스 : ‘근대 후기 신학과 세계의 심판’

이 글은 먼저 번역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사실 이 책이 여러 글들을 모은 것이어서 번역도 여러 명이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다 보니 문체가 각각 달라지기도 하는데, 특히 이 글이 번역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세계의 심판’이라는 말도 독자의 입장에서선 선뜻 종말론적 재림을 뜻하는 말로 느껴지기 쉽상이다. 그러나 글의 내용상으로는 기독교 변증적인 선지자적 외침이나 선포, 결단 촉구 등의 의미인 것 같다. 그러니 적절한 번역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윌리엄스의 훌륭한 글이 다소 격하된 듯한 느낌이 든다.

옥스퍼드대학 신학부의 교수인 윌리엄스는 린드벡을 중심으로 하여 그를 긍정하면서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좀더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인이 세계에 대한 선지자성과 세계를 판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린드벡이 강조한 성경적 언어에서 한 단계 나아가 성경의 언어가 상상력이나 구체적 행위를 통한 드러나지 않는 언어(비유처럼)로 쓰이길 원한다. 이것은 교리를 간단한 형식으로 번역하는 능력이 아니라 효과적인 새로운 세계의 이미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윌리엄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하면서도, 기독교의 핵심을 소개하고 그것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도전시킨 것처럼, 우리도 비기독교적인 언어를 쓰면서도 기독교의 핵심을 드러내어 세상을 심판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엘리엇의 시를 들었다.

윌리엄스는 특히 성경의 세계에 인간의 세계를 삽입하고, 세계의 현상을 성경의 틀로 재해석할 것을 말한다. 그러자면 세계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는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본래의 의미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회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윌리엄스에 대한 비평 :

윌리엄스는 린드벡의 “문화·언어적 이해”에 바탕을 두면서도 더욱 창조적으로 문화에 접근하여 언어 자체가 세상에 대면하여 세상적인

이미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치 본 회퍼의 ‘세속화의 신학’처럼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 “문화·언어적” 접근을 말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란 측면에선 윌리엄스의 견해는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성경 본문의 언어가 바로 전달되어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아무리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이 말씀의 선포적인 의미는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V. 포스트모던 신학 정리

1. 포스트모던적인 신학 운동에 대한 비판

포스트모던적인 신학은 계몽시대의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했던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포스트모더니즘도 결국 타락한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신학은 타락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신학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혹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만 제시하려 한다면 이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금지하시는 마지노선을 침범하고 말 것이다. 성경 범위 속에서 배양된 어휘들로만 세계를 보려는 시각을 진부한 것이라고 간주해 버리면 다원주의적 언어 세계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상황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성경 언어를 고수하려는 것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과학적 언어 속에 ‘빠졌던’ 근대시대의 오류가 근대 후기 세계를 초래했다면, 신학이 굳이 근대 후기의 언어에 다시 빠질 까닭이 ‘뭘’ 있는가? 오히려 상황은 또 변화할 것인데, 변하지 않는 복음과 성경의 언어를 더욱 고수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는가?

2. 포스트모던 대체 신학의 긍정적인 수용에 대해

성경 본문을 시대상황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혐오감은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시도에 대해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려 들지 않은 채 지극히 단순하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몽뚱그려 이단이라고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성경 본문의 진정성과 유일한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그것들이 전달되게 하는 방도로서의 재구성은 오히려 시대 상황에 전도적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성경언어에 대한 창조적 재발굴의 노력들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말씀을 화석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신학을 무조건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상대주의라 몰아붙이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지성적 유희로 사용하면서 안주하고 있을 때 포스트모던 신학자들은 성경의 진리가 동시대의 사람들 속에 침투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천박한 포스트모던 신학자는 몰라도 선량한 신학자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언어들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은 결코 다른 언어들 속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기독교 진리의 변증에 속하는 것이다.

VI. 결론을 대신하며 -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의 과제

1. 연구하는 기독교인(학자, 목회자, 일반 식자층)의 자세

* 복음의 절대성에 충만하기

과학시대에 종교가 무시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상황을 따라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것이

자신들이 부여잡고 있는 복음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양자현상이라는 근대 후기의 세계에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시대 사조에 따라가기 위해 포스트모던 신학이 등장했다. 그런데 그 의도 자체는 건전하지만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니 결국 복음의 변질을 낳았고 복음의 절대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만 것이다. 사실 복음 자체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튼튼하고 건강하다.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과학 시대(근대 시대)에도 그 나름대로 복음은 할 말이 있었고, 지금의 근대 후기 시대에도 복음은 끄떡 없이 할 말을 가진다. 복음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 진리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를 연구하는 기독교인은 우선 복음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

* 복음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조명하기

작년에 경북대 앞에 이념(운동권)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에 들렀을 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책들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음을 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이 시대의 사상과 사조로 자리잡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이런 시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구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철학, 종교 등이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을 형성하려는데 기독교인 우리가 안일하게 절대 불변의 교회 패러다임 안에 안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성경적인 상상력을 상황에 펼쳐 넣어 시대를 조명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이 절대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으로 연구히 남을 수 있지만, 빛된 복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세상 속에서 짠 맛을 가지려면 복음은 상대적으로도 영원한 진리임

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연구하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더구나 이데올로기가 무너져 내린 이 시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벌써 하나의 세계적인 사조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복음으로 그것을 조명하는 작업은 연구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하고 씩씩해야 할 작업이다. 물론 불완전한 우리의 상상력이 천박해지지 않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성령의 인도 속에서 경전과 전통적인 교리 또는 교회적 규범을 부인하거나 체험적인 신비주의에 빠지려는 기존 포스트모던적인 현대 기독교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할 사명이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2. 교회(기독교공동체)의 자세

*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과 삶의 현상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현상은, 건물을 피타고라스적인 균형비에 따라 세우지 않고 불균형적이며 파격적인 형태로 지으려는 건축에서, 작품의 결과보다는 과정과 작업 행위 그 자체의 정신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종교, 철학 등 모든 현상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사람들의 의식과 삶, 사회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한 데서 오는 무기력증, 그리고 충동적, 감각적인 모습을 띤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만 봐도 그렇다. '광장' 시대에서 '밀실' 시대로 전환하여 - '광장'의 저자인 최인훈이 인터뷰에서 이 시대가 '밀실' 시대로 변했다고 표현함 - 선(線)과 덩어리로 연결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모자이크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을

배격하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며, 공동체성보다는 극단적 개인주의, 무관심, 냉소주의가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학가에 최불암시리즈 같은 것이 이런 사조를 반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떤 이는 ‘웃음 띤 허무주의’로 묘사하면서, 이것은 쾌락주의를 양산한다고 보았다. ‘경마장 가는 길’의 소설과 영화를 그 대표로 든다.)

* 기독교공동체의 역할 → 대안 공동체로

이렇게 모든 것이 상대주의화 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절대가치를 가지며 절대화의 표준인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의 요구에 단순하게 반응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충동적이고 감각적으로 되어가면서 신앙의 양상마저 신비주의, 체험주의, 개인 경건주의, 탈교회주의로 되어 가는 것을 경계하며, 말씀과 교리에 대한 강조,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에 관심과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화의 시대 풍조에 교회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회생과 섬김, 나눔이 살아 있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여 교회가 시대적인 대안 공동체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장 2절의 하나님의 권고)